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08. 10

차 례

제1장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설계	3
3. 조사 내용	4
4. 응답자 특성	5
제2장 결과 요약	7
1. 민주주의 인식	9
2. 민주화 운동	10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
제3장 조사 결과	13
I. 민주주의 인식	15
1.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15
2.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18
3.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21
4. 정치적 견해	25
II. 민주화 운동	28
1.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인지도	28
2.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30
3.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33
4.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36
III.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0
1.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40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43
3.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45
4.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47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 인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념사업회의 사업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조사 설계

구분	내 용
조사대상 (모집단)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분석사례수 (표본수)	▪ 총 1,000명
표집방법	▪ 지역/성/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
최대 허용 오차	▪ 95% 신뢰수준 下에서 $\pm 3.1\%$
조사방법	▪ 컴퓨터(CATI system)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기간	▪ 2008년 10월 11일 ~ 10월 13일
조사기관	▪ (주)리서치플러스

3. 조사 내용

주제	세부 내용
민주주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 평가 ▪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우선 해결 과제 ▪ 본인의 정치적 견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인지도 ▪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최초 인지 ▪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 ▪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기여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필요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인지도 ▪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태도
인구통계학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및 지역규모 ▪ 성별, 연령 ▪ 학력 ▪ 직업 ▪ 월 평균 가구소득 ▪ 원적지

4.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N	%			N	%
[전체]		(700)	100.0	[전체]		(700)	100.0
성별	남성	(354)	50.6	지역 규모별	대도시	(331)	47.3
	여성	(346)	49.4		중소도시	(238)	34.0
연령별	10대	(83)	11.9		읍면지역	(131)	18.7
	20대	(130)	18.6	직업별	관리직/전문직	(45)	6.4
	30대	(155)	22.1		사무직	(113)	16.1
	40대	(152)	21.7		서비스/판매직	(223)	31.9
	50대	(105)	15.0		기능/기계/노무직	(57)	8.1
	60세 이상	(75)	10.7		농/어/축산업	(4)	0.6
지역별	서울	(151)	21.6		전업주부	(112)	16.0
	부산	(53)	7.6		학생	(125)	17.9
	인천	(37)	5.3	퇴직/무직	(21)	3.0	
	대구	(37)	5.3	학력별	중졸/재학 이하	(108)	15.4
	광주	(18)	2.6		고졸/재학	(303)	43.3
	대전	(18)	2.6		대졸/재학 이상	(289)	41.3
	울산	(17)	2.4	가구 월 소득별	100만원 미만	(14)	2.0
	경기	(155)	22.1		200~299만원	(62)	8.9
	강원	(21)	3.0		300~399만원	(188)	26.9
	충북	(20)	2.9		400~499만원	(237)	33.9
	충남	(29)	4.1		500만원 이상	(179)	25.6
	전북	(27)	3.9		모름/ 무응답	(20)	2.9
	전남	(26)	3.7	종교별	불교	(151)	21.6
	경북	(37)	5.3		기독교	(156)	22.3
	경남	(45)	6.4		천주교	(65)	9.3
	제주	(9)	1.3		기타 종교	(4)	0.6
			종교 없음		(324)	46.3	

제2장 결과 요약



1. 민주주의 인식

■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 : 높다 23.4%, 중간 49.1% 낮다 23.7%

-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가 49.1%를 차지했으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비율은 각각 23.4%와 23.7%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 확장되어야 74.9%

- 우리사회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확장되어야 한다' 31.5%, '어느 정도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43.5% 등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4.9%를 차지함.
- 한편,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4.6%였으며,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7.1%에 불과했음.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 사회 양극화 해소 30.9% < 사회투명성 제고 26.6%

-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가 30.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득권의 부패 일소와 사회투명성 제고' 26.8%,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 17.9%,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17.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정치적 성향 : 진보 30.1% , 중도 34.1%, 보수 29.5%

- 자신의 정치적 성향/견해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음.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매우 진보적' 5.0%, '어느 정도 진보적' 25.2% 등 30.1%였으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매우 보수적' 5.7%, '어느 정도 보수적' 23.8% 등 29.5%로 조사됨.

2. 민주화 운동

■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인지도

: 5·18민주화운동 < 4·19혁명 < 6·10민주항쟁 < 부마민주항쟁

- 민주화 관련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다'는 응답률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8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960년 4·19 혁명" 76.7%, "1987년 6·10 민주항쟁" 51.7%, "1979년 부마민주항쟁" 43.8% 등의 순임.

■ 민주화 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 5·18민주화운동 < 4·19혁명 < 6·10민주항쟁 < 부마민주항쟁

- 민주화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역시 앞서 각 사건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이 52.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 '4·19 혁명'이 36.1%의 응답률을 보임.
- 한편, '6·10 민주항쟁'(7.3%)과 '부마민주항쟁'(1.8%)에 대한 응답률은 다소 낮았음.

■ 민주화 운동과 사회 발전 :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74.9%

-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6.6%,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8.3%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74.9%를 차지함.
-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매우 부정적 영향' 1.8%, '다소 부정적 영향' 10.1% 등 12.0%였으며, '민주화운동과 사회발전은 무관하다'는 의견은 6.3%로 조사됨.

■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65.0%

-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의견은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17.1%,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47.9% 등 65.0%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 16.7%(매우 부정적 영향 2.8%, 다소 부정적 영향 13.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한편,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는 의견은 11.4%임.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 필요하다 83.5%

-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27.2%, '어느 정도 필요하다' 56.3% 등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5%를 차지함.
-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필요치 않다' 1.4%, '별로 필요치 않다' 11.0% 등 12.4%에 불과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 '안다/들어보았다' 36.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안다' 혹은 '들어보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6.6%이며, '모른다' 혹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63.4%를 차지함.

■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 매우 잘 알고 있다 36.7%, 있다는 것은 안다 50.7%

- 미란다원칙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36.7%,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 안다' 50.7% 등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7.5%를 차지함.
- 반면, '전혀 모른다' 4.6%, '별로 들은 바가 없다' 8.0% 등 '모른다'는 응답은 12.5%임.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응하되 무슨 일 때문에 검문을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가 45.5%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경찰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를 묻고 검문이 합당한지 이유를 판단해서 대응한다'가 41.6%를 차지했으며, '그냥 순순히 응하다'는 응답은 12.2%로 조사됨.

제3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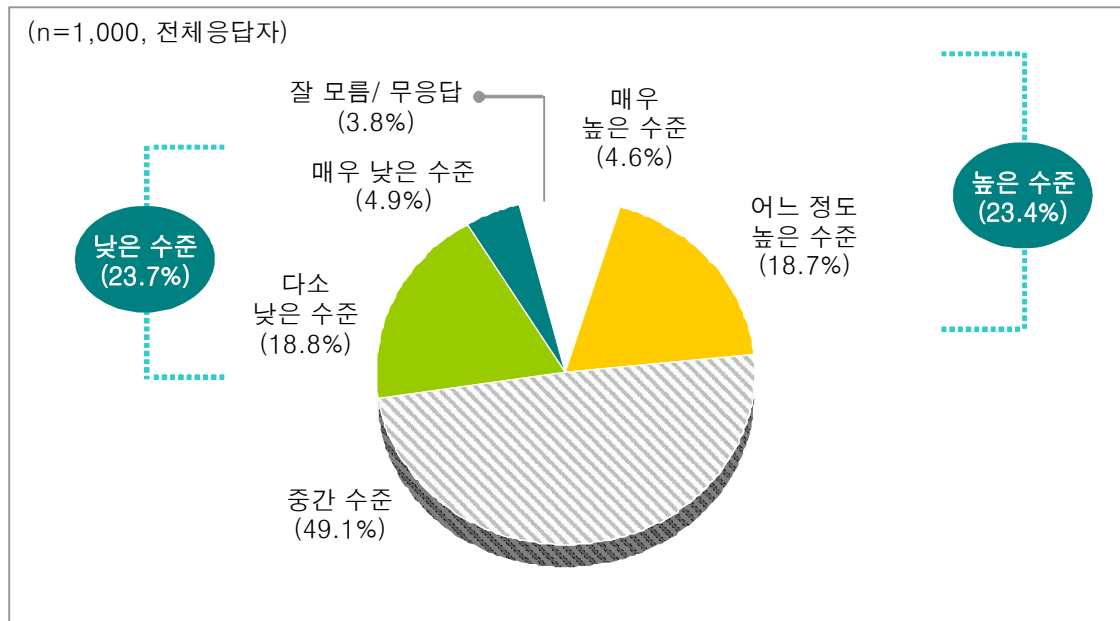


I. 민주주의 인식

1.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문.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OO님께서 평소 느끼시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1>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인식



-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가 49.1%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23.4%(매우 높은 수준 4.6%, 어느 정도 높은 수준 18.7%)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23.7%(매우 낮은 수준 4.9%, 다소 낮은 수준 18.8%)와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표 2> 성별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간 수준이다	다소낮은 수준이다	매우낮은 수준이다	모름/무응답	종합		
								높은수준	중간수준	낮은수준
전체	(1000)	4.6	18.7	49.1	18.8	4.9	3.8	23.4	49.1	23.7
남성	(502)	5.4	20.1	48.4	18.2	5.9	2.1	25.5	48.4	24.0
여성	(498)	3.9	17.4	49.9	19.4	4.0	5.4	21.3	49.9	23.4

- 성별로는 남성의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25.5%로 여성 21.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표 3> 연령별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간 수준이다	다소낮은 수준이다	매우낮은 수준이다	모름/무응답	종합		
								높은수준	중간수준	낮은수준
전체	(1000)	4.6	18.7	49.1	18.8	4.9	3.8	23.4	49.1	23.7
29세 이하	(219)	1.5	17.7	51.1	23.7	4.6	1.4	19.1	51.1	28.4
30대	(240)	3.2	20.6	52.8	16.0	4.9	2.6	23.8	52.8	20.8
40대	(236)	2.4	22.1	47.5	21.4	4.4	2.2	24.6	47.5	25.8
50대	(159)	11.4	16.5	46.9	15.0	4.9	5.3	27.9	46.9	19.9
60세 이상	(146)	7.9	14.3	45.2	15.9	6.4	10.2	22.3	45.2	22.3

- 연령별로는 50대 연령층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연령층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28.4%로 가장 낮았음.

<표 4> 학력별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간 수준이다	다소낮은 수준이다	매우낮은 수준이다	모름/무응답	종합		
								높은수준	중간수준	낮은수준
전체	(1000)	4.6	18.7	49.1	18.8	4.9	3.8	23.4	49.1	23.7
고졸 이하	(447)	5.1	15.0	48.9	18.7	4.7	7.6	20.2	48.9	23.4
대졸 이상	(549)	4.1	21.9	49.7	18.7	4.8	.7	26.0	49.7	23.6
무응답	(4)	19.8	.0	.0	29.8	50.4	.0	19.8	.0	80.2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26.0%로 고졸이하 20.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5> 소득별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간 수준이다	다소낮은 수준이다	매우낮은 수준이다	모름/무응답	종합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전체	(1000)	4.6	18.7	49.1	18.8	4.9	3.8	23.4	49.1	23.7
200만원 미만	(252)	6.8	13.7	43.5	20.4	5.7	10.0	20.5	43.5	26.1
200~400만원 미만	(408)	3.3	19.5	53.4	19.2	3.6	1.1	22.8	53.4	22.8
400만원 이상	(223)	4.2	24.8	49.2	14.9	6.1	.8	29.0	49.2	21.0
무응답	(117)	5.8	15.3	46.5	21.3	5.7	5.4	21.1	46.5	27.0

-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수준' 응답률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수준'의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6> 정치적 성향별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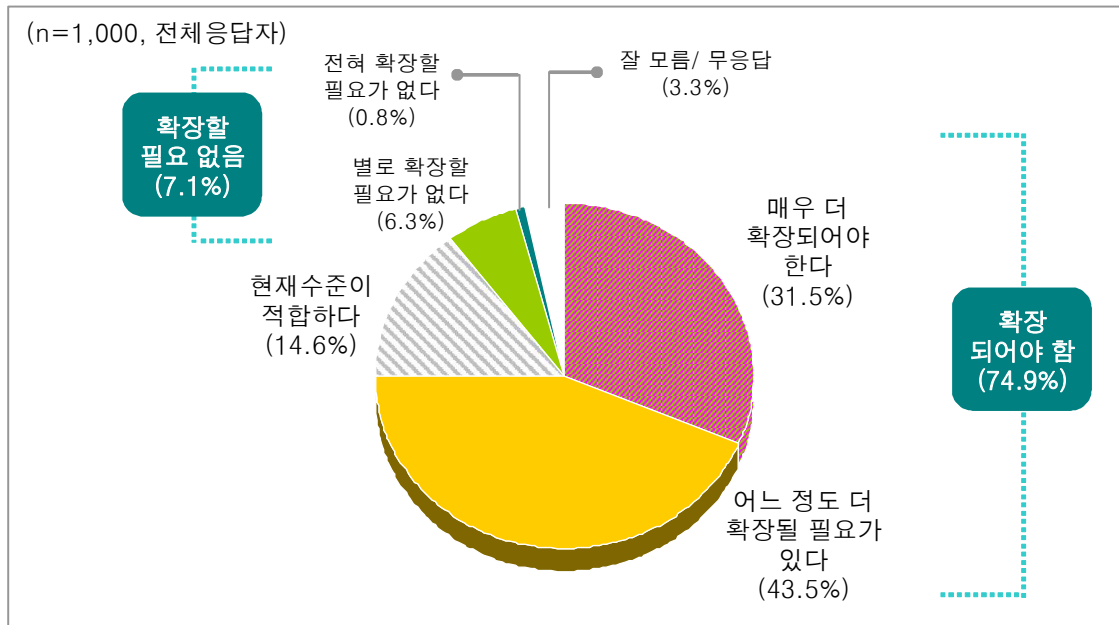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간 수준이다	다소낮은 수준이다	매우낮은 수준이다	모름/무응답	종합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전체	(1000)	4.6	18.7	49.1	18.8	4.9	3.8	23.4	49.1	23.7
진보적	(301)	2.9	19.3	50.8	20.7	5.2	1.1	22.2	50.8	25.9
중도적	(341)	3.7	15.5	52.8	19.8	4.3	3.9	19.2	52.8	24.1
보수적	(295)	7.7	23.2	44.2	17.3	5.0	2.7	30.9	44.2	22.3
모름/무응답	(64)	4.1	12.9	44.2	11.3	6.7	20.9	17.0	44.2	18.0

-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적 응답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응답률이 30.9%로 진보적(22.2%), 중도적(19.2%)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문. 그럼,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2>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인식



-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더 확장되어야 한다’ 31.5%, ‘어느 정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43.5% 등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4.9%를 차지했으며,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전혀 확장할 필요가 없다’ 0.8%, ‘별로 확장할 필요가 없다’ 6.3% 등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음. 한편,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4.6%를 차지함.

<표 8> 성별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인식

구분	사례수	앞으로 매우 더 확장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	별로 확장할 필요가 없다	전혀 확장할 필요가 없다	모름/ 무응답	종합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	확장할 필요 없다
전체	(1000)	31.5	43.5	14.6	6.3	.8	3.3	74.9	14.6	7.1
남성	(502)	35.0	42.5	15.5	4.2	.8	2.0	77.5	15.5	5.0
여성	(498)	28.0	44.4	13.7	8.5	.8	4.7	72.4	13.7	9.3

- 성별로는 남성의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응답률이 77.5%로 여성 72.4%에 비해 다소 높았음.

<표 9> 연령별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인식

구분	사례수	앞으로 매우 더 확장되어야 한다	어느정도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	별로 확장할 필요가 없다	전혀 확장할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	종합		
								확장할 필요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	확장할 필요 없다
전체	(1000)	31.5	43.5	14.6	6.3	.8	3.3	74.9	14.6	7.1
29세 이하	(219)	32.7	54.4	7.5	3.6	.0	1.8	87.1	7.5	3.6
30대	(240)	32.5	49.6	10.8	3.7	1.9	1.6	82.1	10.8	5.6
40대	(236)	35.7	39.8	15.2	5.9	.0	3.3	75.6	15.2	5.9
50대	(159)	29.4	33.3	23.6	10.9	1.7	1.0	62.7	23.6	12.6
60세 이상	(146)	23.4	33.9	20.6	10.5	.5	11.0	57.3	20.6	11.0

-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응답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87.1%, 30대 82.1%, 40대 75.6%, 50 62.7%, 60세 이상 57.3% 등 저연령층일수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10> 학력별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인식

구분	사례수	앞으로 매우 더 확장되어야 한다	어느정도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	별로 확장할 필요가 없다	전혀 확장할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	종합		
								확장할 필요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	확장할 필요 없다
전체	(1000)	31.5	43.5	14.6	6.3	.8	3.3	74.9	14.6	7.1
고졸 이하	(447)	27.0	41.7	16.7	8.7	.6	5.3	68.7	16.7	9.3
대졸 이상	(549)	34.8	45.2	12.7	4.4	1.0	1.8	80.1	12.7	5.4
무응답	(4)	70.2	.0	29.8	.0	.0	.0	70.2	29.8	.0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68.7%) 보다 대졸 이상(80.1%) 학력층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응답률이 높았음.

<표 11> 지역별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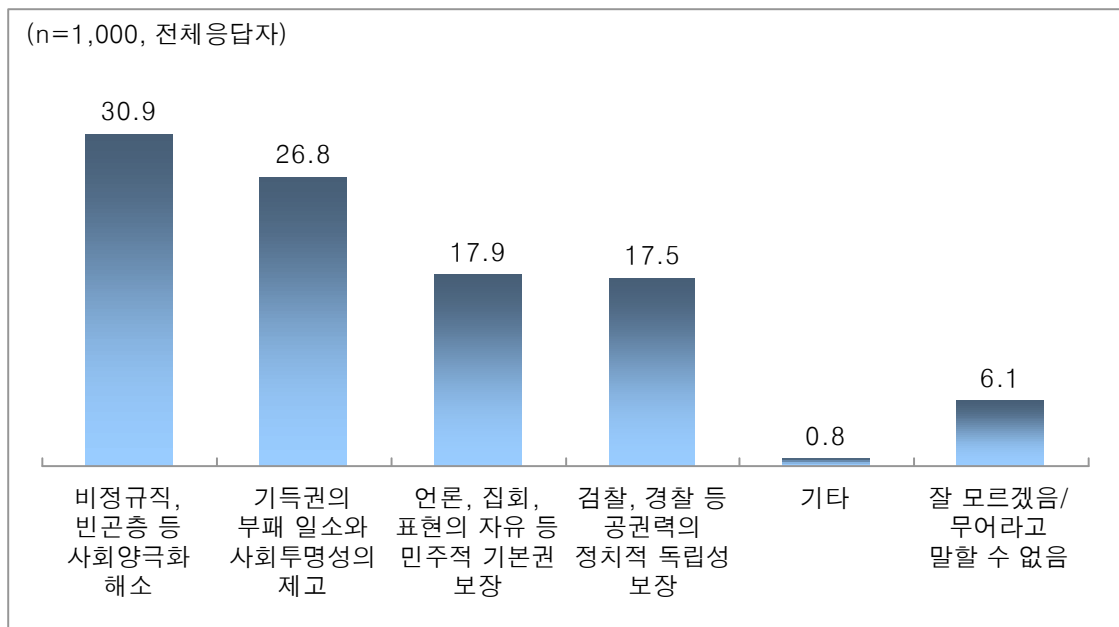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앞으로 매우 더 확장되어 야 한다	어느정도 더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	별로 확장할 필요가 없다	전혀 확장할 필요가 없다	모름/ 무응답	종합		
								확장할 필요 있다	현재 수준이 적합	확장할 필요 없다
전체	(1000)	31.5	43.5	14.6	6.3	.8	3.3	74.9	14.6	7.1
서울	(218)	37.5	39.4	14.3	8.3	.0	.4	76.9	14.3	8.3
경기/인천	(275)	33.0	43.2	15.5	4.3	1.2	2.7	76.2	15.5	5.6
강원	(31)	34.5	45.8	14.0	.0	.0	5.6	80.3	14.0	.0
대전/충청	(98)	25.7	41.9	16.0	6.1	3.1	7.1	67.6	16.0	9.2
대구/경북	(106)	29.3	39.1	15.4	11.5	.9	3.7	68.4	15.4	12.4
부산/울산/경남	(162)	25.8	49.6	15.9	5.7	.0	2.9	75.5	15.9	5.7
광주/전라	(100)	31.4	47.9	6.7	5.8	.8	7.6	79.2	6.7	6.6
제주	(10)	20.0	50.0	30.0	.0	.0	.0	70.0	30.0	.0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응답률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67.6%)과 대구/경북(68.4%)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3.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문. OO님께서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 양극화 해소'가 3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득권의 부패 일소와 사회투명성 제고' 26.8%,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 17.9%,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17.5%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13> 성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구분	사례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층의 부패 일소와 사회 투명성의 제고	잘 모르겠음/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타
전체	(1000)	17.9	17.5	30.9	26.8	6.1	.8
남성	(502)	19.7	20.4	28.9	24.8	4.6	1.6
여성	(498)	16.1	14.6	32.9	28.8	7.6	.0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남성 19.7%, 여성 16.1%)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남성 20.4%, 여성 14.6%)의 응답률이 여성이 비해 약간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 양극화 해소'(여성 32.9%, 남성 28.9%)과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투명성 제고'(여성 28.8%, 남성 24.8%)의 응답률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표 14> 연령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구분	사례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 투명성의 제고	잘모르겠다 /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타
전체	(1000)	17.9	17.5	30.9	26.8	6.1	.8
29세 이하	(219)	19.7	14.3	41.9	21.8	1.9	.4
30대	(240)	20.6	20.4	21.2	33.6	2.9	1.3
40대	(236)	18.8	17.5	30.7	28.2	4.4	.4
50대	(159)	11.3	20.1	34.0	27.1	6.5	1.0
60세 이상	(146)	16.6	15.0	27.0	20.5	19.9	1.0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 양극화 해소' 응답률이 41.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30대 연령층은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 투명성 제고'가 33.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표 15> 학력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구분	사례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 투명성의 제고	잘모르겠다 /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타
전체	(1000)	17.9	17.5	30.9	26.8	6.1	.8
고졸 이하	(447)	14.4	15.1	35.5	24.6	10.2	.2
대졸 이상	(549)	20.5	19.6	27.2	28.8	2.8	1.2
무응답	(4)	56.2	.0	23.9	.0	.0	19.8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층의 경우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 양극화해소' 응답률이 35.5%로 대졸이상 27.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는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20.5%)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19.6%)의 응답률이 고졸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음.

<표 16> 소득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구분	사례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투명성의 제고	잘모르겠다 /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타
전체	(1000)	17.9	17.5	30.9	26.8	6.1	.8
200만원 미만	(252)	15.4	15.6	30.8	25.3	12.3	.7
200~400만원 미만	(408)	17.6	16.6	35.2	27.1	2.8	.8
400만원 이상	(223)	20.9	21.7	22.1	30.3	4.2	.7
무응답	(117)	18.6	17.0	32.8	22.3	7.9	1.5

-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과 200~400만원 미만 소득층의 경우 '사회 양극화 해소'의 응답률이 각각 30.8%와 35.2%로 400만원 이상 소득층 22.1%에 비해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 소득층은 '기득권층 부패일소와 사회투명성 제고'의 응답률이 30.3%로 가장 높았음. 또한,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20.9%)과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21.7%)의 응답률도 200만원 미만 및 200~400만원 미만 소득층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17> 우리사회 민주화 수준 인식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구분	사례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투명성의 제고	잘모르겠다 /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타
전체	(1000)	17.9	17.5	30.9	26.8	6.1	.8
높은 수준	(234)	16.8	20.5	25.7	30.7	5.3	1.1
중간 수준	(491)	15.7	18.5	33.1	26.4	5.7	.7
낮은 수준	(237)	25.5	13.7	31.0	25.4	3.4	1.0
모름/ 무응답	(38)	6.5	10.6	33.3	17.3	32.3	.0

- 우리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대해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 경우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의 응답률이 25.5%로 높다 및 낮다 평가자에 비해 높았음. 반면, 높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20.5%)과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투명성 제고'(30.7%)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사회양극화 해소'는 민주화 수준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표 18> 정치적 성향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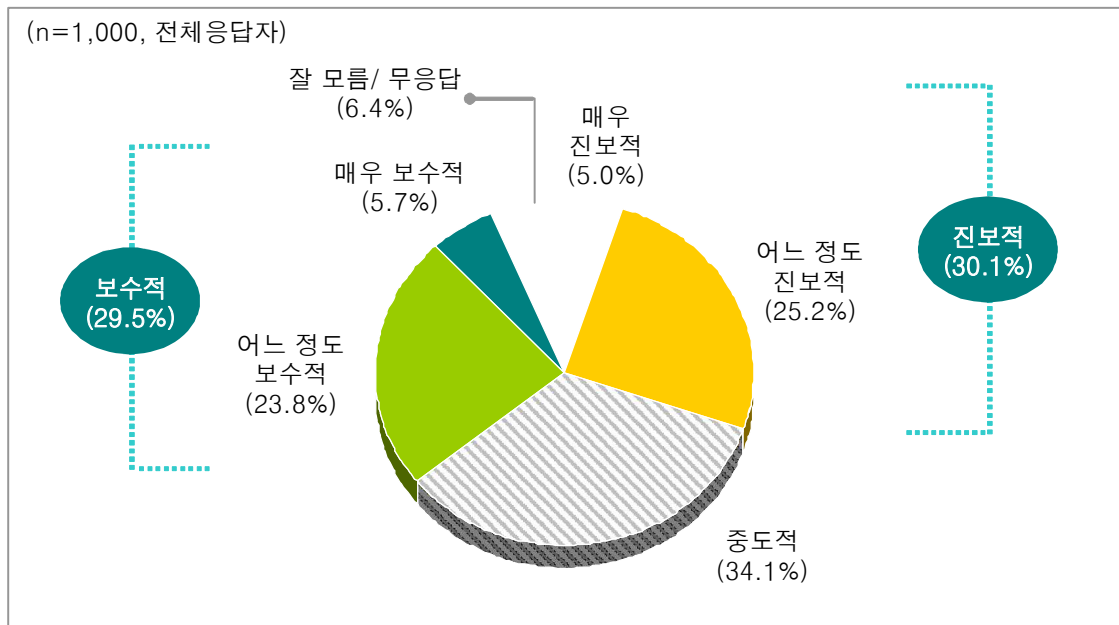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층의 부패일소와 사회 투명성의 제고	잘 모르겠다 /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타
전체	(1000)	17.9	17.5	30.9	26.8	6.1	.8
진보적	(301)	24.2	17.3	26.6	29.0	2.0	1.0
중도적	(341)	14.6	17.3	33.1	28.7	5.8	.5
보수적	(295)	15.4	18.4	34.7	24.2	6.7	.6
모름/ 무응답	(64)	17.7	15.6	21.8	18.3	24.2	2.5

-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적 응답자의 경우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의 응답률이 24.2%로 중도적(14.6%), 보수적(15.4%) 응답자에 비해 높았으며, '사회양극화 해소'의 경우는 중도적(33.1%), 보수적(34.7%) 응답자가 진보적(26.6%)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4. 정치적 견해

문. OO님의 정치적 견해는 어느 쪽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 정치적 견해/성향



- 자신의 정치적 견해·성향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30.1%(매우 진보적 5.0%, 어느 정도 진보적 25.2%)로 '보수적' 29.5%(매우 보수적 5.7%, 어느 정도 보수적 23.8%)와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임.

<표 20> 성별 정치적 견해/성향

구분	사례수	매우 진보적	어느정도 진보적	중도적	어느정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모름/무응답	종합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전체	(1000)	5.0	25.2	34.1	23.8	5.7	6.4	30.1	34.1	29.5
남성	(502)	6.3	26.8	31.5	22.7	7.6	5.1	33.1	31.5	30.3
여성	(498)	3.6	23.5	36.7	24.8	3.8	7.7	27.1	36.7	28.6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여성 보다 진보적(남성 33.1%, 여성 27.1%)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중도적(여성 36.7%, 남성 31.5%)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음.

<표 21> 연령별 정치적 견해/성향

구분	사례수	매우 진보적	어느정도 진보적	중도적	어느정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모름/ 무응답	종합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전체	(1000)	5.0	25.2	34.1	23.8	5.7	6.4	30.1	34.1	29.5
29세 이하	(219)	4.2	29.9	34.6	20.5	6.4	4.4	34.1	34.6	26.9
30대	(240)	5.8	23.8	32.6	24.1	7.1	6.6	29.6	32.6	31.2
40대	(236)	5.8	29.1	36.9	22.7	2.4	3.2	34.9	36.9	25.1
50대	(159)	5.1	23.1	34.6	28.4	4.2	4.6	28.3	34.6	32.6
60세 이상	(146)	3.3	16.0	30.6	24.7	9.4	16.1	19.3	30.6	34.1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40대 연령층에서 '진보' 응답률이 각각 34.1%와 34.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응답률은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각각 32.6%와 34.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 소득별 정치적 견해/성향

구분	사례수	매우 진보적	어느정도 진보적	중도적	어느정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모름/ 무응답	종합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전체	(1000)	5.0	25.2	34.1	23.8	5.7	6.4	30.1	34.1	29.5
200만원 미만	(252)	5.5	15.7	33.0	25.4	9.6	10.7	21.3	33.0	35.0
200~400만원 미만	(408)	5.2	27.6	38.6	20.4	4.9	3.4	32.7	38.6	25.2
400만원 이상	(223)	4.5	33.8	28.6	26.6	5.0	1.6	38.3	28.6	31.5
무응답	(117)	3.9	20.6	30.9	26.6	1.6	16.5	24.5	30.9	28.2

-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200만원 미만 21.3%, 200~400만원 32.7%, 400만원 이상 38.3%)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3> 지역별 정치적 견해/성향

구분	사례수	매우 진보적	어느정도 진보적	중도적	어느정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모름/ 무응답	종합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전체	(1000)	5.0	25.2	34.1	23.8	5.7	6.4	30.1	34.1	29.5
서울	(218)	2.9	32.1	31.1	24.8	4.4	4.7	34.9	31.1	29.2
경기/인천	(275)	8.1	26.0	34.2	21.6	5.0	5.2	34.1	34.2	26.6
강원	(31)	3.2	21.8	46.5	18.5	5.6	4.4	25.0	46.5	24.2
대전/충청	(98)	1.0	18.7	37.6	25.9	12.8	4.1	19.7	37.6	38.6
대구/경북	(106)	2.6	20.7	32.8	33.3	5.5	5.1	23.3	32.8	38.8
부산/울산/경남	(162)	6.4	26.1	33.0	21.5	5.0	8.0	32.6	33.0	26.5
광주/전라	(100)	5.9	19.9	34.4	18.9	5.5	15.5	25.7	34.4	24.4
제주	(10)	.0	10.0	50.0	40.0	.0	.0	10.0	5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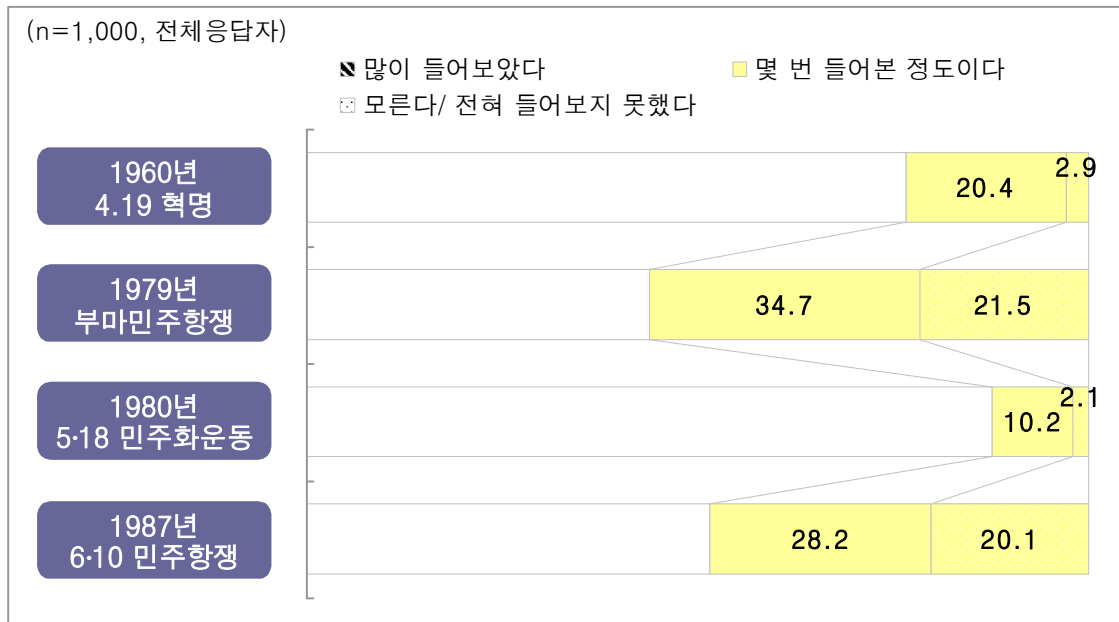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층의 경우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각각 34.9%와 3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전/충청과 대구/경북 거주층의 경우는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38.6%와 38.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II. 민주화 운동

1.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인지도

문. OO님께서서는 다음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림 5>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인지도



- 민주화 관련 주요 사건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87.7%로 가장 인지도고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1960년 4·19혁명”에 대해서는 76.7%가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함. “1987년 6·10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절반이 약간 넘는 51.7%가 ‘많이 들어보았다’고 답했으며,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8%임.

<표 25> 성별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인지도('많이 들어보았다' 응답률)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전체	(1000)	76.7	43.8	87.7	51.7
남성	(502)	82.2	51.4	90.8	61.2
여성	(498)	71.2	36.2	84.6	42.2

- 성별로는 여성 보다는 남성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6> 연령별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인지도('많이 들어보았다'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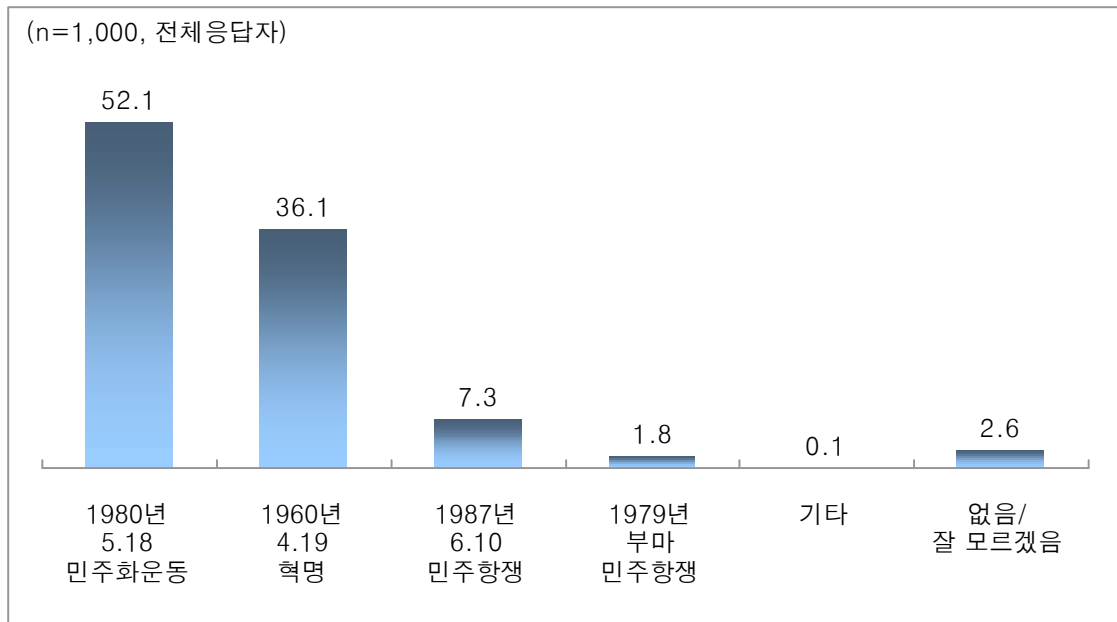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전체	(1000)	76.7	43.8	87.7	51.7
29세 이하	(219)	64.1	26.9	79.7	42.3
30대	(240)	72.8	31.1	87.8	46.9
40대	(236)	81.0	54.5	93.1	59.5
50대	(159)	83.7	53.2	90.2	55.6
60세 이상	(146)	87.4	62.5	88.2	56.8

- 연령별로는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많이 들어보았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5·18 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경우는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음.

2.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문. 그럼, OO님께서서는 민주화 운동..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림 6>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 민주화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52.1%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1960년 4·19혁명'이 36.1%의 응답률을 보임. '1987년 6·10민주항쟁'(7.3%)과 '1979년 부마 민주항쟁'(1.8%)은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28> 성별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36.1	1.8	52.1	7.3	.1	2.6
남성	(502)	36.9	2.1	47.8	11.0	.0	2.1
여성	(498)	35.4	1.6	56.4	3.5	.2	3.0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5·18 민주화 운동'(여성 56.4%, 남성 47.8%)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6·10 민주항쟁'(남성 11.0%, 여성 3.5%) 응답률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9> 연령별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36.1	1.8	52.1	7.3	.1	2.6
29세 이하	(219)	32.9	.0	60.4	3.8	.5	2.4
30대	(240)	26.3	2.2	57.3	12.9	.0	1.3
40대	(236)	33.7	1.7	52.9	10.9	.0	.8
50대	(159)	33.5	3.4	55.5	4.1	.0	3.6
60세 이상	(146)	63.9	2.5	26.0	.9	.0	6.7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은 '4·19 혁명' 응답률이 63.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배 정도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저연령층일수록 '5·18 민주화 운동'의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29세 이하 60.4%, 30대 57.3%, 40대 52.9%, 50대 55.5%, 60세 이상 26.0%)

<표 30> 학력별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36.1	1.8	52.1	7.3	.1	2.6
고졸 이하	(447)	42.2	2.1	47.8	4.2	.0	3.7
대졸 이상	(549)	31.3	1.7	55.6	9.6	.2	1.6
무응답	(4)	19.8	.0	50.4	29.8	.0	.0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4·19 혁명'의 응답률이 42.2%로 대졸이상 31.3%에 비해 높았으며, 대졸이상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응답률이 55.6%로 고졸이하 47.8%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1> 소득별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36.1	1.8	52.1	7.3	.1	2.6
200만원 미만	(252)	45.9	1.0	45.6	4.1	.0	3.4
200~400만원 미만	(408)	33.6	3.1	54.0	8.1	.0	1.2
400만원 이상	(223)	28.5	1.2	57.7	11.3	.0	1.3
무응답	(117)	38.7	.6	48.6	3.5	.9	7.7

-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4·19 혁명'(200만원 미만 45.9%, 200~400만원 33.6%, 400만원 이상 28.5%)의 응답률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5·18 민주화 운동'(200만원 미만 45.6%, 200~400만원 54.0%, 400만원 이상 57.7%)과 '6·10 민주항쟁'(200만원 미만 4.1%, 200~400만원 8.1%, 400만원 이상 11.3%)의 응답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2> 지역별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1000)	36.1	1.8	52.1	7.3	.1	2.6
서울	(218)	40.0	1.9	50.4	5.8	.0	1.8
경기/인천	(275)	34.8	1.1	53.2	9.6	.0	1.3
강원	(31)	29.8	.0	59.4	8.4	.0	2.4
대전/충청	(98)	38.2	.0	48.3	8.4	.0	5.1
대구/경북	(106)	51.0	2.4	36.4	5.7	.0	4.4
부산/울산/경남	(162)	38.5	5.4	44.5	8.8	.0	2.9
광주/전라	(100)	14.4	.0	79.4	2.4	1.0	2.8
제주	(10)	10.0	.0	90.0	.0	.0	.0

-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의 응답률이 79.4%로 다른 지역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부마 민주항쟁'이 5.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33> 정치적 성향별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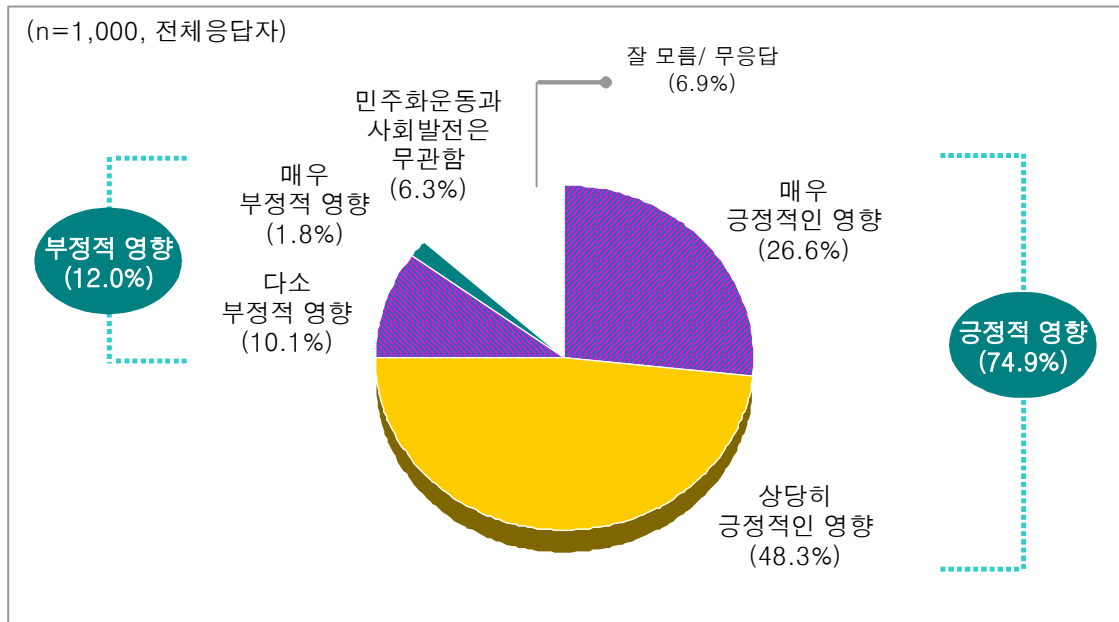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1000)	36.1	1.8	52.1	7.3	.1	2.6
진보적	(301)	30.0	1.7	57.2	10.2	.0	.9
중도적	(341)	36.3	2.1	52.7	6.4	.0	2.5
보수적	(295)	41.6	1.9	48.7	6.0	.0	1.8
모름/무응답	(64)	39.2	1.1	40.2	4.1	1.6	13.9

-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5·18 민주화 운동'(진보적 57.2%, 중도적 52.7%, 보수적 48.7%)의 응답률이 높고, 보수적일수록 '4·19 혁명'(보수적 41.6%, 중도적 36.3%, 진보적 30.0%)의 응답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3.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문. OO님께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7>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인식



-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 26.6%,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26.6% 등 74.9%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매우 부정적 영향’ 1.8%, ‘다소 부정적 영향’ 10.1% 등 12.0%로 조사됨. 한편, ‘민주화 운동과 사회발전을 무관하다’는 응답은 6.3%임.

<표 35> 성별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 발전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하다
전체	(1000)	26.6	48.3	10.1	1.8	6.3	6.9	74.9	12.0	6.3
남성	(502)	35.1	48.4	4.5	2.1	4.8	5.1	83.5	6.6	4.8
여성	(498)	17.9	48.3	15.8	1.5	7.8	8.7	66.2	17.4	7.8

-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남성 83.5%, 여성 66.2%로 여성 보다 남성의 평가가 더 긍정적임.

<표 36> 연령별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 발전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하다
전체	(1000)	26.6	48.3	10.1	1.8	6.3	6.9	74.9	12.0	6.3
29세 이하	(219)	24.2	59.9	4.4	1.4	6.5	3.7	84.1	5.8	6.5
30대	(240)	28.0	50.7	9.1	1.3	4.1	6.8	78.7	10.4	4.1
40대	(236)	32.7	42.9	14.7	.4	5.1	4.1	75.6	15.2	5.1
50대	(159)	24.1	46.2	13.0	3.0	6.9	6.9	70.3	16.0	6.9
60세 이상	(146)	20.4	38.1	9.9	4.4	10.8	16.2	58.6	14.4	10.8

- 연령대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가율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84.1%, 30대 78.7%, 40대 75.6%, 50대 70.3%, 60세 이상 58.6% 등 저연령층일수록 긍정적인 평가율이 높게 나타남.

<표 37> 학력별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 발전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하다
전체	(1000)	26.6	48.3	10.1	1.8	6.3	6.9	74.9	12.0	6.3
고졸 이하	(447)	22.3	43.0	14.1	2.0	8.3	10.2	65.3	16.1	8.3
대졸 이상	(549)	30.0	52.6	7.0	1.5	4.7	4.2	82.6	8.5	4.7
무응답	(4)	19.8	56.2	.0	23.9	.0	.0	76.1	23.9	.0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층이 고졸 이하 학력층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대졸 이상 82.6%, 고졸이하 65.3%)는 평가가 높게 나타남.

<표 38> 소득별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 발전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 하다
전체	(1000)	26.6	48.3	10.1	1.8	6.3	6.9	74.9	12.0	6.3
200만원 미만	(252)	21.8	41.2	11.9	2.5	11.6	11.1	62.9	14.4	11.6
200~400만원 미만	(408)	30.2	49.6	9.4	2.0	4.5	4.3	79.8	11.4	4.5
400만원 이상	(223)	33.4	51.0	9.9	.0	4.8	.8	84.5	9.9	4.8

-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 62.9%, 200~400만원 79.8%, 400만원 이상 84.5% 등 고소득층일 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남.

<표 39> 지역별 민주화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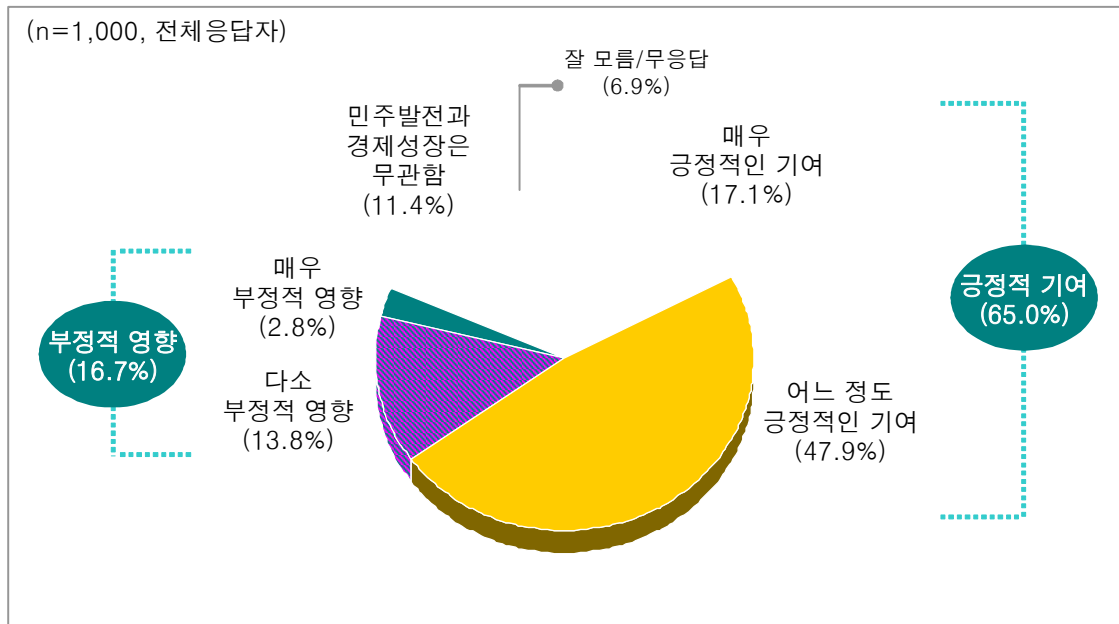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 발전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 하다
전체	(1000)	26.6	48.3	10.1	1.8	6.3	6.9	74.9	12.0	6.3
서울	(218)	28.1	51.5	8.1	3.1	4.3	4.9	79.5	11.2	4.3
경기/인천	(275)	29.4	47.4	11.7	1.2	5.4	4.9	76.8	12.9	5.4
강원	(31)	27.4	55.5	8.2	.0	8.9	.0	82.9	8.2	8.9
대전/충청	(98)	23.0	50.3	9.4	4.1	4.1	9.2	73.3	13.4	4.1
대구/경북	(106)	17.0	40.8	13.9	.9	12.4	14.9	57.8	14.9	12.4
부산/울산/경남	(162)	21.5	53.1	9.8	1.0	9.6	5.0	74.6	10.8	9.6
광주/전라	(100)	36.6	39.9	8.1	1.7	3.3	10.5	76.5	9.7	3.3
제주	(10)	30.0	50.0	10.0	.0	.0	10.0	80.0	10.0	.0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았음.

4.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문. OO님께서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림 8>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식



-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17.1%,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47.9%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응답이 65.0%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8%,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13.8% 등 ‘부정적’인 평가 16.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한편,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는 응답은 11.4%로 조사됨.

<표 41> 성별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	모름/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하다
전체	(1000)	17.1	47.9	13.8	2.8	11.4	6.9	65.0	16.7	11.4
남성	(502)	22.5	48.6	10.9	2.6	11.7	3.7	71.1	13.4	11.7
여성	(498)	11.7	47.1	16.8	3.1	11.2	10.1	58.8	19.9	11.2

-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응답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71.1%, 여성 58.8%로 여성 보다 남성의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음.

<표 42> 연령별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	모름/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하다
전체	(1000)	17.1	47.9	13.8	2.8	11.4	6.9	65.0	16.7	11.4
29세 이하	(219)	12.1	55.8	11.0	2.4	16.5	2.1	67.9	13.4	16.5
30대	(240)	17.2	54.3	10.9	2.5	9.6	5.5	71.5	13.4	9.6
40대	(236)	21.8	45.8	14.3	2.7	8.7	6.7	67.6	17.0	8.7
50대	(159)	17.4	44.5	17.5	3.2	11.9	5.6	61.8	20.7	11.9
60세 이상	(146)	16.5	32.3	18.0	3.8	10.8	18.5	48.9	21.8	10.8

- 연령별 '긍정적' 평가율은 29세 이하 67.9%, 30대 71.5%, 40대 67.6%, 50대 61.8%, 60세 이상 48.9% 등 29세 이하를 제외하면 대체로 저연령층일수록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평가가 높았음. 29세 이하의 경우 '무관하다'는 응답이 16.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 학력별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	모름/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하다
전체	(1000)	17.1	47.9	13.8	2.8	11.4	6.9	65.0	16.7	11.4
고졸 이하	(447)	17.0	42.9	14.2	3.1	11.0	11.8	59.9	17.3	11.0
대졸 이상	(549)	17.2	52.0	13.6	2.4	11.9	3.0	69.2	15.9	11.9
무응답	(4)	26.5	29.8	.0	43.8	.0	.0	56.2	43.8	.0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59.9%) 보다 대졸이상(69.2%) 학력층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의 응답률이 높았음.

<표 44> 소득별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 하다
전체	(1000)	17.1	47.9	13.8	2.8	11.4	6.9	65.0	16.7	11.4
200만원 미만	(252)	15.7	44.0	13.2	2.5	11.8	12.9	59.7	15.6	11.8
200~400만원 미만	(408)	20.4	49.7	13.8	3.7	9.3	3.1	70.1	17.5	9.3
400만원 이상	(223)	17.7	48.0	15.4	2.9	13.9	2.1	65.7	18.3	13.9
무응답	(117)	7.6	49.4	12.2	.6	13.4	16.9	57.0	12.8	13.4

- 소득별로는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이나 고소득층(400만원 이상) 보다 중간 소득층(200~400만원 미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응답률이 더 높았음(200만원 미만 59.7%, 200~400만원 70.1%, 400만원 이상 65.7%)

<표 45> 지역별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 하다
전체	(1000)	17.1	47.9	13.8	2.8	11.4	6.9	65.0	16.7	11.4
서울	(218)	19.1	46.9	13.1	4.2	10.5	6.1	66.0	17.4	10.5
경기/인천	(275)	16.1	47.0	14.3	2.8	13.3	6.5	63.1	17.1	13.3
강원	(31)	20.5	36.3	16.6	2.4	12.9	11.3	56.8	19.0	12.9
대전/충청	(98)	21.4	43.8	12.0	3.1	7.4	12.2	65.2	15.1	7.4
대구/경북	(106)	11.6	43.5	19.8	2.2	17.9	5.0	55.0	22.1	17.9
부산/울산/경남	(162)	18.3	49.8	13.1	2.0	11.9	4.9	68.1	15.1	11.9
광주/전라	(100)	14.9	61.3	8.9	1.0	4.4	9.5	76.2	9.9	4.4
제주	(10)	10.0	50.0	20.0	10.0	10.0	.0	60.0	30.0	10.0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긍정적' 평가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 지역이 55.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음.

<표 46> 정치적 성향별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	모름/ 무응답	종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관 하다
전체	(1000)	17.1	47.9	13.8	2.8	11.4	6.9	65.0	16.7	11.4
진보적	(301)	24.8	49.3	12.0	1.7	8.1	3.9	74.2	13.8	8.1
중도적	(341)	15.0	48.9	12.7	3.4	12.5	7.6	63.9	16.1	12.5
보수적	(295)	13.4	47.7	16.6	3.1	14.9	4.4	61.0	19.7	14.9
모름/ 무응답	(64)	9.2	36.4	15.0	3.9	5.9	29.6	45.6	18.9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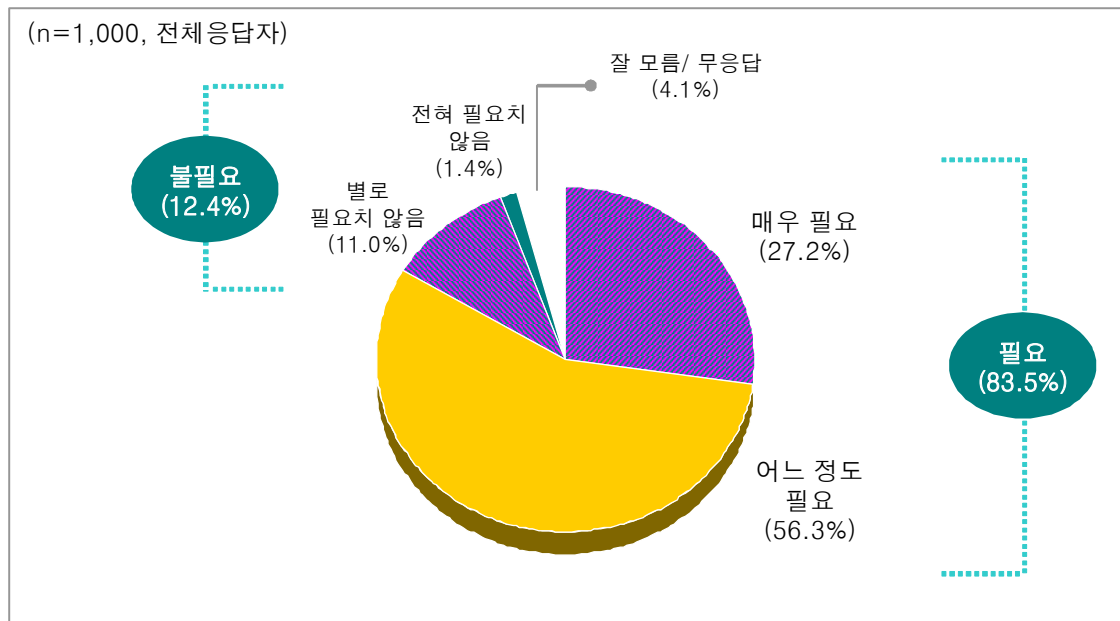
- 정치적 성향별 ‘긍정적’ 평가율은 진보적 74.2%, 중도적 63.9%, 보수적 61.0% 등 진보적 일수록 민주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Ⅲ.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문. OO님께서서는 그간에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9>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인식



- 그 동안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27.2%, '어느 정도 필요하다' 56.3% 등 '필요하다'는 응답이 83.5%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전혀 필요치 않다' 1.4%, '별로 필요치 않다' 11.0% 등 12.4%로 조사됨.

<표 48> 성별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치 않다	모름/무응답	종합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전체	(1000)	27.2	56.3	11.0	1.4	4.1	83.5	12.4
남성	(502)	33.8	53.2	8.8	1.6	2.5	87.0	10.5
여성	(498)	20.5	59.4	13.3	1.2	5.6	80.0	14.4

- ‘필요하다’ 응답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7.0%, 여성 80.0%로 여성 보다 남성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표 49> 연령별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치 않다	모름/무응답	종합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전체	(1000)	27.2	56.3	11.0	1.4	4.1	83.5	12.4
29세 이하	(219)	23.8	66.9	7.1	.5	1.7	90.7	7.6
30대	(240)	26.9	60.0	8.4	1.1	3.7	86.8	9.5
40대	(236)	35.1	51.0	11.1	.8	2.0	86.1	11.9
50대	(159)	26.4	49.9	17.0	2.8	3.9	76.3	19.8
60세 이상	(146)	20.9	50.1	14.8	2.6	11.7	71.0	17.3

- 연령별 ‘필요하다’ 응답률은 29세 이하 90.7%, 30대 86.8%, 40대 86.1%, 50대 76.3%, 60세 이상 71.0% 등 저연령층일수록 더 높았음.

<표 50> 학력별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치 않다	모름/무응답	종합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전체	(1000)	27.2	56.3	11.0	1.4	4.1	83.5	12.4
고졸 이하	(447)	23.0	54.5	13.5	1.3	7.6	77.5	14.8
대졸 이상	(549)	30.6	57.6	9.1	1.5	1.2	88.3	10.5
무응답	(4)	23.9	76.1	.0	.0	.0	100.0	.0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77.5%, 대졸이상의 8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민주화 운동 계승 필요성에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 지역별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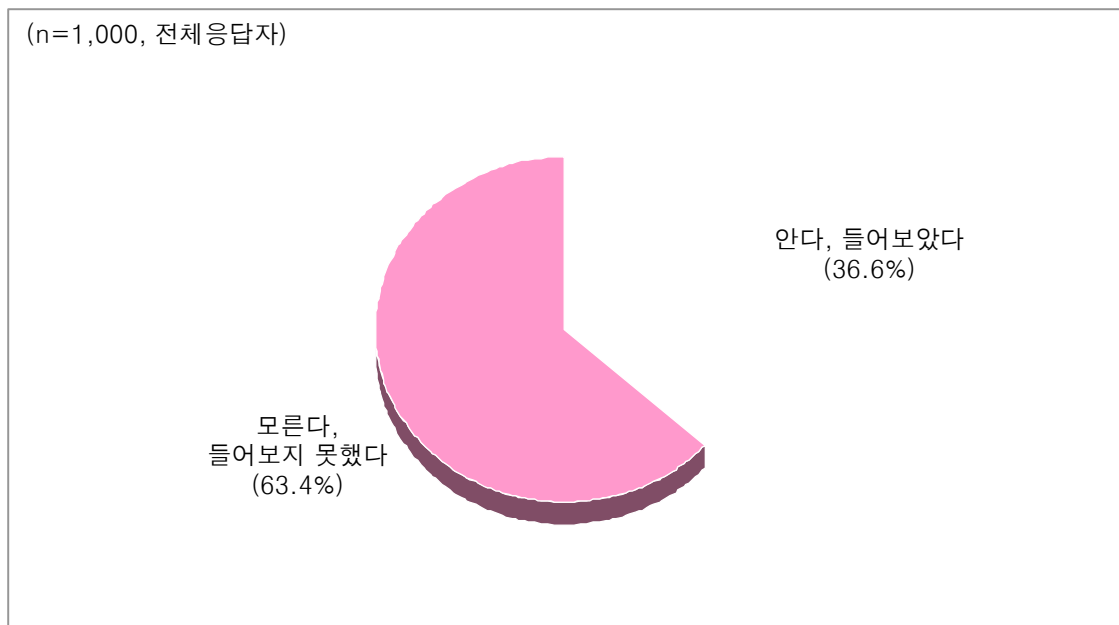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치 않다	모름/ 무응답	종합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전체	(1000)	27.2	56.3	11.0	1.4	4.1	83.5	12.4
서울	(218)	31.5	54.7	9.7	1.8	2.3	86.2	11.5
경기/인천	(275)	26.7	55.8	11.8	1.6	4.2	82.5	13.4
강원	(31)	28.1	63.9	8.1	.0	.0	91.9	8.1
대전/충청	(98)	27.1	58.4	6.9	2.6	5.1	85.4	9.5
대구/경북	(106)	24.2	49.4	20.0	1.9	4.4	73.6	21.9
부산/울산/경남	(162)	22.3	58.8	14.0	.5	4.4	81.1	14.5
광주/전라	(100)	32.0	56.8	3.8	.0	7.5	88.8	3.8
제주	(10)	10.0	90.0	.0	.0	.0	100.0	.0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필요하다' 응답률이 73.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을 조사됨.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문. OO님께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알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림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인지도(‘안다/들어보았다’ 응답률)는 36.6%이며, ‘모른다/들어보지 못했다’ 응답률은 63.4%임.

<표 53> 성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안다/ 들어 보았다	모른다/ 들어보지 못했다
전체	(1000)	36.6	63.4
남성	(502)	40.8	59.2
여성	(498)	32.4	67.6

- 성별로는 여성 보다 남성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가 약간 더 높았음(남성 40.8%, 여성 32.4%).

<표 54> 연령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안다/ 들어 보았다	모른다/ 들어보지 못했다
전체	(1000)	36.6	63.4
29세 이하	(219)	13.9	86.1
30대	(240)	30.6	69.4
40대	(236)	47.9	52.1
50대	(159)	53.1	46.9
60세 이상	(146)	44.6	55.4

- 연령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는 29세 이하 13.9%, 30대 30.6%, 40대 47.9%, 50대 53.1%, 60세 이상 44.6% 등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표 55> 학력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안다/ 들어 보았다	모른다/ 들어보지 못했다
전체	(1000)	36.6	63.4
고졸 이하	(447)	39.8	60.2
대졸 이상	(549)	33.9	66.1
무응답	(4)	49.6	50.4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층의 인지도가 39.8%로 대졸이상 33.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표 56> 지역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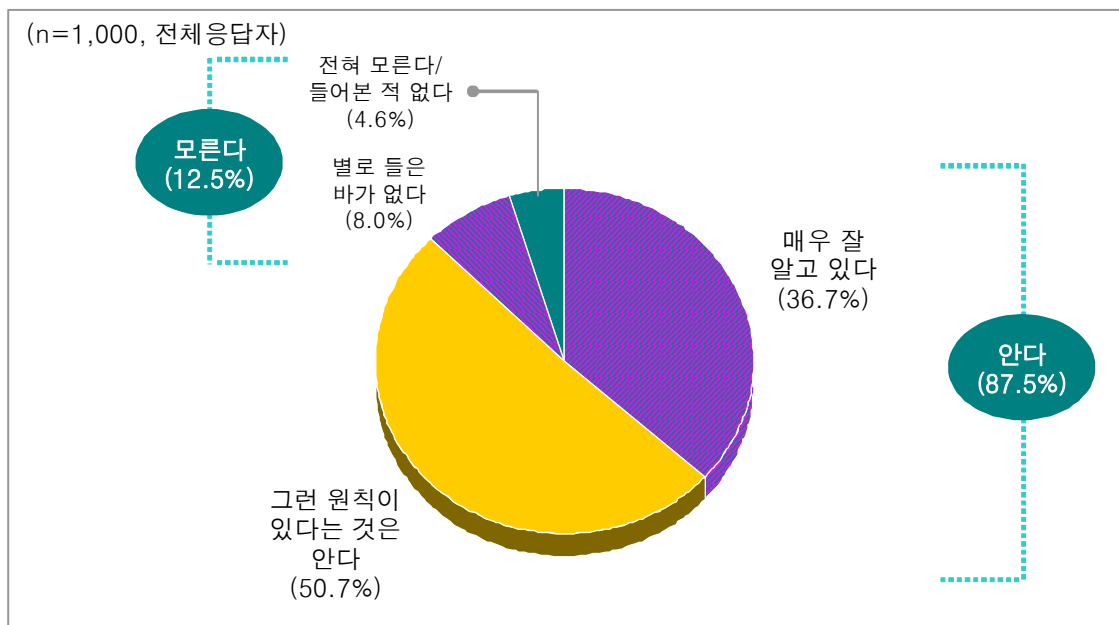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안다/ 들어 보았다	모른다/ 들어보지 못했다
전체	(1000)	36.6	63.4
서울	(218)	35.3	64.7
경기/인천	(275)	39.3	60.7
강원	(31)	43.9	56.1
대전/충청	(98)	36.3	63.7
대구/경북	(106)	30.6	69.4
부산/울산/경남	(162)	34.7	65.3
광주/전라	(100)	36.6	63.5
제주	(10)	70.0	30.0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30.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3.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문. OO님께서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공권력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즉시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그림 11>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36.7%,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 안다’ 50.7% 등 ‘안다’는 응답이 87.5%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모른다’는 응답은 ‘전혀 모른다/들어본 적 없다’ 4.6%, ‘별로 들은 바가 없다’ 8.0% 등 12.5%로 조사됨.

<표 58> 성별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 안다	별로 들은 바가 없다	전혀모름 /들어본 적 없다	종합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000)	36.7	50.7	8.0	4.6	87.5	12.5
남성	(502)	44.5	45.1	7.1	3.2	89.7	10.3
여성	(498)	28.9	56.4	8.8	5.9	85.3	14.7

- 미란다 원칙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4.5%, 여성 28.9%로 여성 보다 남성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남.

<표 59> 연령별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안다	별로들은 바가없다	전혀모름 /들어본 적 없다	종합	
						알고있다	모른다
전체	(1000)	36.7	50.7	8.0	4.6	87.5	12.5
29세 이하	(219)	45.2	45.6	6.9	2.3	90.8	9.2
30대	(240)	40.4	48.7	8.8	2.1	89.1	10.9
40대	(236)	38.0	55.7	4.7	1.6	93.6	6.4
50대	(159)	31.5	57.1	7.0	4.4	88.6	11.4
60세 이상	(146)	21.6	46.9	14.6	17.0	68.4	31.6

- 연령대별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률은 29세 이하 45.2%, 30대 40.4%, 40대 38.0%, 50대 31.5%, 60세 이상 21.6% 등 저연령층일수록 미란다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60> 학력별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안다	별로들은 바가없다	전혀모름 /들어본 적 없다	종합	
						알고있다	모른다
전체	(1000)	36.7	50.7	8.0	4.6	87.5	12.5
고졸 이하	(447)	26.0	55.0	11.1	8.0	80.9	19.1
대졸 이상	(549)	45.6	47.3	5.5	1.6	92.9	7.1
무응답	(4)	19.8	53.7	.0	26.5	73.5	26.5

- 학력별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률은 고졸이하 26.0%, 대졸이상 45.6%로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61> 소득별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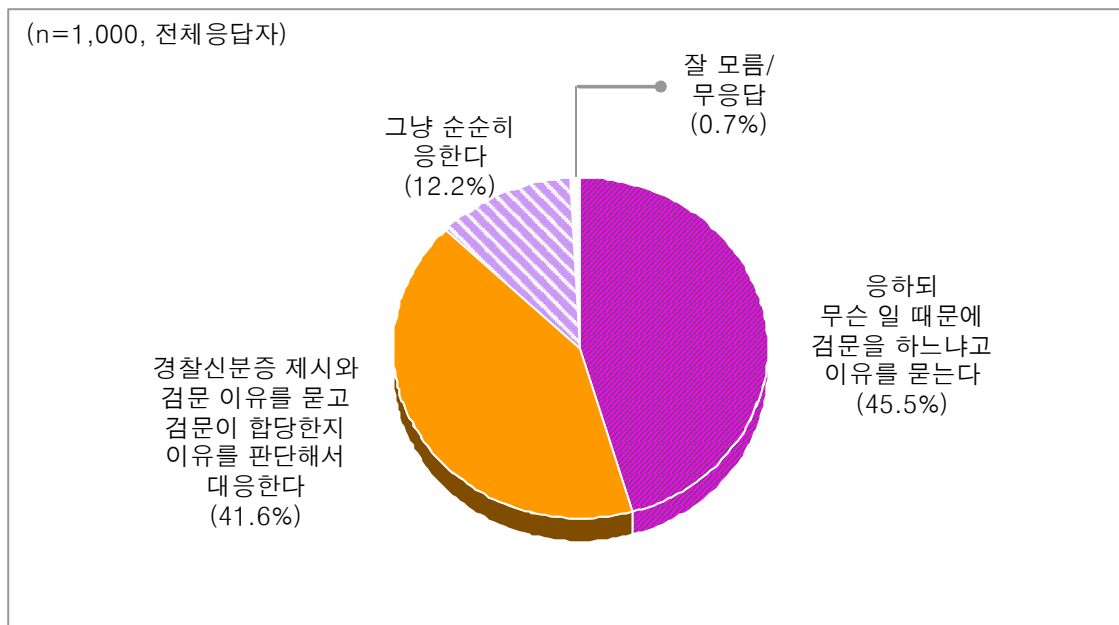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안다	별로들은 바가없다	전혀모름 /들어본 적 없다	종합	
						알고있다	모른다
전체	(1000)	36.7	50.7	8.0	4.6	87.5	12.5
200만원 미만	(252)	27.5	47.8	13.1	11.6	75.3	24.7
200~400만원 미만	(408)	36.5	56.1	6.2	1.2	92.6	7.4
400만원 이상	(223)	49.0	48.2	2.4	.4	97.2	2.8
무응답	(117)	34.0	43.3	13.7	9.0	77.3	22.7

-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률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27.5%, 200~400만원 36.5%, 400만원 이상 49.0% 등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4.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문. OO님께서만약에 길을 가다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와 소지품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림 12>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응하되 무슨 일 때문에 검문을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경찰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를 묻고 검문이 합당한지 이유를 판단해서 대응한다’는 응답이 41.6%를 차지함. 반면, ‘그냥 순순히 응한다’는 응답은 12.2%임.

<표 63> 성별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구분	사례수	그냥 순순히 응한다	응하되 무슨 일 때문에 검문을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의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12.2	45.5	41.6	.7
남성	(502)	15.0	45.2	38.9	.9
여성	(498)	9.3	45.9	44.3	.6

-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의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대응' 응답률은 여성 44.3%, 남성 38.9%로 남성 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그냥 순순히 응한다'는 남성 15.0%, 여성 9.3%로 남성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표 64> 연령별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구분	사례수	그냥 순순히 응한다	응하되 무슨 일 때문에 검문을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의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12.2	45.5	41.6	.7
29세 이하	(219)	8.3	44.6	46.6	.5
30대	(240)	11.9	47.5	39.5	1.1
40대	(236)	12.2	44.9	42.0	.9
50대	(159)	9.1	49.4	41.6	.0
60세 이상	(146)	21.6	40.6	36.8	1.1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그냥 순순히 응한다'의 응답률이 21.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9세 이하의 경우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대응' 응답률이 46.6%로 가장 높았음.

<표 65> 학력별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구분	사례수	그냥 순순히 응한다	응하되 무슨 일 때문에 검문을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의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12.2	45.5	41.6	.7
고졸 이하	(447)	14.8	44.5	39.9	.8
대졸 이상	(549)	10.1	46.5	43.1	.3
무응답	(4)	.0	23.9	19.8	56.2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그냥 순순히 응한다' 응답률이 14.8%로 대졸 이상 1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66> 소득별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구분	사례수	그냥 순순히 응한다	응하되 무슨 일 때문에 검문을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의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12.2	45.5	41.6	.7
200만원 미만	(252)	18.3	42.3	38.7	.7
200~400만원 미만	(408)	10.9	48.0	41.1	.0
400만원 이상	(223)	5.9	50.9	42.9	.3
무응답	(117)	15.3	33.7	47.0	4.0

- ‘그냥 순순히 응한다’ 응답률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18.3%, 200~400만원 10.9%, 400만원 이상 5.9% 등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남.